

2018년 연차 학술대회 특별 보고서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학문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향 탐색

2018.12.1.



2018년 연차 학술대회 특별 보고서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학문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향 탐색

2018년도 교육행정학회 학술편찬위원회

위원장: **신정철**(서울대학교 교수)
부위원장: **염민호**(전남대학교 교수)
위원: **고장완**(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엄문영(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이필남(홍익대학교 교수)
정성수(대구교육대학교 교수)

2018.12.1.



발간의 배경 1

1.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 무엇이 문제인가?
..... 조석훈(가천대학교) // 5

2.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의 문제: 신진 연구자의 연구 경험에
 터한 자기반성 이필남(홍익대학교) // 13

3.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지식기반: 사회적 맥락의 관점
..... 신정철(서울대학교) // 23

4.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변기용(고려대학교) // 33

5.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풍토에 대한 성찰 송경오(조선대학교) // 43

6. 교육행정학 연구: 지식사회와 정체성 위기 .. 신정철(서울대학교) // 51

7. 한국교육행정학회 발전 방안 김병찬(경희대학교) // 61

8. 묻고 답하는 나는 누구인가? 염민호(전남대학교) // 69

발간의 배경

우리는 해방과 더불어 교육행정학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학술적 탐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육행정학이 어떠한 학문인지에 대하여, 그리고 교육행정학이 어떠한 학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육행정학회의 학술대회 주제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근 교육행정학회의 춘계, 추계, 그리고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또한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학문적 패러다임에 관한 고민과 더불어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논문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고민이 몇몇 연구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학 연구자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 김혜숙 학회장의 요청에 따라 분과위원회인 학술편찬위원회는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에 관한 동료 학자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의 학문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향들을 탐색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들의 발표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에 소개하는 내용은 2018년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발표자 여덟 분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하나의 일관된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발표자들의 문제 인식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각기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어 하나의 글로 정리하는 것은 발표자들의 의도를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 오히려 연구자별로 각기 다양한 학문적 관심과 개인적인 선호 등에 따라 교육행정학 연구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이에 학술편찬위원회는 발표자들의 원고를 가급적 그대로 게재하여 발표함으로써, 동료 학자 및 신진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본 보고서를 읽어보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학문 탐구의 방향을 새롭게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가 신진학자들이 교육행정학자로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조그마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하여 워크숍에 발표된 8편의 발표 자료들을 하나의 흐름에 따라 편집하였다. 먼저, 교육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어떤 의미인가를 탐색한 조석훈 교수의 글을 소개하고, 이어서 교육행정학 연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와 이슈를 검토한 이필남 교수의 글과 한국 사회과학 탐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인 사회적 맥락(또는 토착화)에 관한 신정철 교수의 논의를 소개한다. 또한, 교육행정학 연구의 인식론적 기반과 연구 방법론 등에 관한 변기용 교수의 견해와 송경오 교수의 견해를 소개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학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학회의 운영, 학문적 소통,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김병찬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학문 탐구의 패러다임에 관한 고민은 비단 교육행정학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눈을 돌

러 타 인접 학문 분야들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정철 교수의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지식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확산된 전문가 집단(knowledge professional)의 등장과 학자들의 학술적 자아정체감 혼란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염민호 교수의 글은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삶의 궤적을 되돌아보면서 자라나는 학문후속세대에게 많은 질문거리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학자와 대화하면서 연구에 대하여 자신과 상당히 다른 관점과 철학을 가진 동료 연구자들을 마주하게 된다. 교육행정학에서 이론과 실천에 관한 견해의 차이, 연구방법론에 관한 각자의 소신 등은 차라리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것은 개인적 성품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학자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각기 상이한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학문 탐구의 패러다임을 고민해 보는 것은 그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학계가 어느 정도 공동으로 합의한 연구의 큰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학계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학문 탐구의 방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학계에 소속된 학자들로서 앞으로 고민할 주제들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교육행정학 연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게재된 대부분의 글들은 학문적 탐구의 과정을 통하여 정교하게 설계된 연구물이라기보다는 발표자 각자가 교육행정

학에 애착을 가진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행정학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해 본 것이다. 발표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의식, 제안사항 등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발표자들이 그 동안의 경험과 개인적인 통찰을 통하여 앞으로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발로는 향후 우리 학계의 건설적 발전과 개방적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많은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난 워크숍에 참여하여 진솔한 의견을 주시고, 이를 글로 남겨주신 발표자 여러분들과 워크숍에 참여하여 거침없는 의견을 주신 동료학자님들, 그리고 강의실에 메워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학문후속세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 무엇이 문제인가?

조석훈(가천대학교)

1. 패러다임(paradigm)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 일종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교육행정학이 관심을 갖는 현상을 인식하게 해 주는 인식의 체계 또는 틀이며, 교육행정학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관점, 문제의식, 사고방식 등을 규정하는 테두리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이 없다면 교육행정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분석과 사고의 전개를 이끌어줄 틀이 없는 셈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표현하면 치료하려는 의사는 있지만 환자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치료하면 환자의 병이 낫는지 모른 채 환자에게 처방을 하는 셈이다.

3.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 있지 않거나 모호하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탐구를 자극하는 질문은 무엇인지, 탐구를 할 때 어떤 변인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 등을 알려주고 규정한다.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연구 자체를 수행할 수 없을뿐더러 왜 그 연구를 하는지를 스스로와 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게 설명할 수 없고 정당화할 수도 없다.

4.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문제 삼을 때 또 다른 배경은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불만족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이 수명을 다하여 교육행정에서 새로 출현하는 요구나 현상을 포착하고 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인식의 틀로서 효용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 및 미래에 효용 가치가 적거나 없다고 해서 그런 무가치가 과거까지 소급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환경이 변화면서 기존의 틀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의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다.

5. 우리가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문제 삼을 때 우리는 어떤 배경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어떤 배경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국제화, 지식정보화, 사회의 다원화, 구성주의 철학 등과 관련지어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지적하여 왔고 최근에는 다시 4차 산업 혁명을 화두로 하여 다시금 연구의 패러다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라는 지적은 많아도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6.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청 이전에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지부터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날카로운 이해가 부족하면 새로 요청되는 연구 패러다임의 필요성 및 그 가치에 대한 예리한 이해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7. 우선 한국 사회를 지배한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광복 후 1차적인 교육의 과제는 교육기회의 확대였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1950년대에 완성되었지만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된 것이 2004년이므로 교육기회 확대는 2000년대까지도 핵심 가치였다.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병행해서 부각된 가치는 교육기회의 평등이었다.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교육기회의 확대가 곧 평등의 실현이었지만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기회가 곧 평등인 시기는 지나고 역으로 교육기회 확대가 불평등을 야기하는 터전이 되었다.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열어주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확대된 교육기회의 장에서 더 나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 경쟁력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맡겨진 책임이자 과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8. 교육기회 확대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현상에 맞추어 교육행정학 연구는 교육기회 평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교육 재원을 확충하여 교육기회 자체가 평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과 함께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쟁적인 교육 투자 활동을 제한하는 모자 씌우기 정책(cap policy)이 시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평등을 신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과 함께 부족한 교육재원으로 인한 한계 속에서 돈이 들지 않는 각종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s)로서 입시정책이 동원되었다.

9. 교육기회의 확대와 평등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에 대한 관심은 교육행정학 연구의 대상을 학교의 구성원보다는 정부의 정책 결정자나 집행자로 이동시켰고, 교육 관련 당사자 특히 학생·학부모·교사의 행위보다는 정책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교육 외적 차원의 교육기회

확대와 평등에 대한 경향은 상대적으로 교육 내적 차원(교육의 과정)에 대한 관심을 덜 갖게 하였다. 교육행정학 연구는 가치, 제도, 재원 등에 초점을 맞추었고 상대적으로 교육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사고, 감정, 태도 등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10. 1950년에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기 시작한 미국 교육행정학은 우리 환경에 독특한 방식으로 조절되어 연구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분권화된 교육체제를 가진 나라로서 교육구별 평균 학생수는 3,000명 정도이다. 교육구가 1940년대에 비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통폐합된 상황에서도 이 정도이므로 과거에는 얼마나 더 작은 단위의 교육운영체제가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만하다. 이런 분권화된 학교운영체제에서 학교 통제권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즉, 일반인 통제주의(layman control)와 전문가 통제주의(professional control)의 대립이었다. 이런 대립이 한국에 수입되면서 '전문성'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일반인은 관료로, 전문가는 교사로 대립되었다. 학교장도, 교육청의 장학사도, 교육부의 교육전문 행정가도 대립하는 상대자에 따라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전문가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전문성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11. 바로 전문성은 교육행정 제도, 교원 인사, 지방교육자치제도, 각종 교육과정 등에 모두 적용되는 가치 규범이 되었고 교육행정학 연구는 '전문성' 신장 및 제고의 틀에 지배당했다. 하지만 '전문성'은 교육의 내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집단 분류의 준거로 작용했고 그 결과 교육행정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규정하고 권한 관계를 조정하는 가치 규범으

로 기능을 발휘하였다.

12.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은 교육기회 확대, 평등, 전문성을 키워드로 삼아서 가치, 자원, 기회 등의 배분에 관한 정치적 과정에 집중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조직 특성과 그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서양에서 수입된 교육행정학 연구의 이론과 접점을 갖기 어려웠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서양에서 발달한 조직론 및 조직행위론과 별로 연결될 여지가 없었고 리더십론과도 별로 관계가 없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학 연구자들은 꾸준히 서양의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교육행정가에게도,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에게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말았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이러한 괴리를 더욱 크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부각된 문제의식이 아니라 서양의 환경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담은 용어를 중심으로 한 각종 교육행정학 연구가 수입·수행되면서 우리는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의 홍수 속에서 교육패러다임의 빈곤을 경험하는 모순을 안게 되었다. 교육행정학 연구의 키워드는 패션 유행과 같이 정부에 따라 변해가면서 그 바탕에 깔린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교육행정 현상과 관련 문제의식의 골격은 더 모호해지게 되었다.

14. 이런 가운데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은 한편으로 구한말의 쇄국정책에 비견되는 지향을 보이기도 하고, 고도로 복잡한 통계기법으로 문제보다는 방법을 강조하는 쪽으로 일탈하기도 하고, 순환근무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유

용한 법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교육행정학 연구는 연구의 수요자와 괴리된 채 너무 많은 '훌륭한 연구를 너무 많은 영역에 걸쳐, 엉크러진 직소퍼즐(zigsaw puzzle) 조각'을 만들어내는 데 몰두해왔다.

15. 앞으로 교육행정학 연구의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상황에서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에 부과된 문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를 넘어 더 근본적인 통증과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이 문제의식을 다루어갈 수 있는 이론을 찾고 정립하자. 이 과정에서 한국과 서양 사이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의식의 차이를 넘어 근원적인 문제의식의 공통 분모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공통 분모를 기초로 그 차이에 대한 예리한 구별을 통해 우리의 문제의식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는 작업을 하자.

16.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를 정립한다고 해서 쇄국정책을 취하면서 서양의 이론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고전이론부터 시작하여 서양의 이론이 태동된 배경, 문제의식, 그 이론과 다른 관점·이론과의 관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 교육행정학에 관련된 이론은 그 출현 배경과 상황에 따라 지역적, 국가별 특수성을 갖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공통된 욕구를 기초로 한 인식론, 존재론, 가치론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서양의 이론은 우리의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는 데 유용한 토대가 되거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다.

17.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발견에 초점을 두자. 지금까지 '현황과 문제점'의 틀에 지배당해왔다. 현황을 진단하는 것 자체가 독특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

면 다른 현황 진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증주의적 접근이 지배하면서 ‘현황과 문제점’은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현황과 문제점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대안을 바로 문제점의 동전의 다른 면처럼 취급하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자. 문제의 파악과 대안의 개발은 관련되어 있지만 매우 상이한 과제이다. 때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게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

18. 교육행정 현상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잘 모르는 인간이 그 현상의 구성과 변동, 작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교육행정학을 벗어나 심리학의 성과를 수용하자. ‘호손공장 - Piaget - Supervision - 교사 잡무’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육행정학의 패러다임 정립이라는 슬로건으로 인간 이해와 그 해석에 선구적인 노력을 해 온 서양의 성과를 쉽게 내다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호손공장 연구자들이 과학적 관리법의 틀을 벗어던졌을 때 ‘여명의 지대’로 들어섰다고 느꼈고 그토록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던 게 합리적으로 혹은 합리적이지도 비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자.

19. 마지막으로 교육행정학 연구의 결과 보고 방식도 다양화하자. 직소 퍼즐 조각을 만드는 연구 못지않게 만들어져 있는 조각을 맞추어 큰 그림을 보여주는 리뷰 논문도 많이 내자. 논쟁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논문,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논문, 반복 연구(데이터나 분석방법만 달리하는), 저명 연구자의 생애를 그의 문제의식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스케치하는 논문, 1-2페이지의 간단한 논문, 다른 논

문과 논의와 해석만을 달리하는 논문, 멀티미디어와 링크된 논문 등이다. 학술지도 차별화하여 특정한 성격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20.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변론을 하며 마치고자 한다.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나 대안에 대하여 말하였지만, 환경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도 있다. 현재의 교육행정학 연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육행정학 연구를 계속 유지시키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밀려날 것이다. 그 힘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해진 시간 안에 물건을 생산해내듯이 논문을 써 내야 하는 현실에서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혹은 교육행정 연구자를 더 기진맥진하게 하는 돌팔매질일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자기 위로를 한다면 생산해내야 연구 실적 물량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일 수도 있다. 교육행정학회가 지천명의 나이를 지나고 있다. 오늘날 50세는 어린애 취급당하고 있는 시절을 감안하면 너무 비판하기보다는 격려가 더 필요한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인지도 모르겠다.

2.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의 문제: 신진 연구자의 연구 경험에 터한 자기반성

이필남(홍익대학교)

2.1. 들어가며

최근 교육행정학 연구의 지식기반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교육행정학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교육행정학 분야 연구의 연구, 즉 메타연구 논문만 해도 약 20편에 달한다. 또한, 2016년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 교육행정학의 이론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난 후, 올해도 교육행정연구 워크숍 형태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교육과 이를 둘러싼 행정의 현상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 교육행정학 연구자에게 교육행정학 메타연구는 학문적 정체성과 지향점을 제시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행정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가? 대체 우리의 학문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동안 제기된 교육행정학 연구의 주요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신현석, 2017; 이종재, 2002; 허병기, 2003). 첫째, 이론 연구가 미흡하고,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고유의 교육행정학 이론 모형이 부족하다. 이는 단기적 안목의 현실 처방적 실제 연구 또는 정책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문제제기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학교 현장 연구보다는 국가 수준의 논의가 주가 되고 있다. 셋째, 연구대상과 영역간 불균형 문제가 있고, 방법론의 편중과 오용 및 남용 현상이 심각하다. 마지막

으로, 연구자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몰두하여 연구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학문공동체 내의 상호 비판이 부족하다.

이상의 문제들은 교육행정학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10년 미만의 교육행정학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신진 연구자라 할 수 있는 본인이 그 동안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반성적으로 교육행정학 연구의 문제를 성찰해보고자 한다.

교육행정학 연구자의 연구 활동은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의 방법이라는 내부 영역과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제약 또는 지원하는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행정학 연구 활동의 내부 진단을 위하여 누가(정체성), 무엇을 위해(연구 목적), 무엇을(연구 주제와 내용), 어떻게(연구 방법)로 나누어 고찰하고, 연구 활동의 외부 환경은 제도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2.2. 교육행정학 연구 활동의 내부 진단

첫째, 교육행정학 연구자의 학문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육행정학이 교육학의 분과학문이라면 교육행정학 연구자는 교육학자이자 교육행정학자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선 나는 교육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교육학을 정체불명의 학문이라고 비판하며 교육분위론을 주창해 온 장상호(2005)는 지금까지의 교육학 연구자를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교육속론자: 교육실제의 개선을 지향하는 학교교육 연구자, ② 외출지망자: 권력이나 세속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서 학문을 하는 자, ③ 용병학자: 교육학이 아닌 다른 모 학문에 기

대어 교육현상을 탐구하는 자, ④ 기능론자: 교육을 다른 분야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자가 그것이다. 물론 이 논의에서는 교육학의 학문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저자의 비판적인 입장을 이해하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의 교육학 연구자 분류 중에서 나는 적어도 교육속론자, 용병학자, 기능론자가 아니라고 선불리 주장하기 어렵다. 실제로 교육행정학은 학교교육(schooling)의 실제의 개선을 지향하고,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과 같은 기존 사회과학 모 학문의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현상을 탐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정책을 고안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교육의 내재적 가치 고양을 궁구하는 데 소홀한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면 나는 교육학자로서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민하기 보다는 교육 관련 현상에 관심이 있는 행정학자, 또는 경제학자와 크게 다르다고 인식하지 않은 듯하다. 모 학문이라 할 수 있는 행정학과 경제학의 최신 이론과 방법론 연구 동향을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교육행정과 정책 현상에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연구하고 있다고 안위하지 않았는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행정학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흔히 교육행정학은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개선을 지향하는 응용학문의 성격을 지닌다고 규명된다(변기용, 2018; 신정철, 2014). 또한 교육행정학 지식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타 학문(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등) 이론의 차용이 빈번하고, 이는 결국 차별화와 토착화의 이중고로 이어진

다는 지적도 있다(신현석, 2017). 실제로 2010년 이후 교육행정학 연구 논문의 5% 만이 교육행정 이론 연구였다고 보고되었다(임연기·김훈호, 2018).

응용학문으로서의 학문적 성격, 교육행정 실제의 개선에 기여하려는 실천성이 강조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론 연구보다 실제 연구가 주를 이루는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정교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나는 우리 교육행정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보다는 한국 교육행정과 정책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제 문제의 원인과 정책의 효과 탐구에 집중해 왔다. 한편 정작 교육행정학을 가르치는 수업 현장에서는 교육행정학의 독자적 이론의 빈곤함을 애써 변명하면서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였다. 실제로 교육행정학 개론서에 소개되는 이론은 여전히 여타 분과 학문에서 차용된(차별화하지 못하고), 주로 미국에서 개발된(토착화하지 못한) 이론이 대부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무엇을 연구하는가?

교육행정학 연구의 주제 영역은 흔히 교육행정 이론 및 연구, 교육정책 및 기획, 교육재정 및 경제, 교육법규 및 제도, 교육행정체제, 교육인사, 교육조직 및 경영, 장학 및 학교컨설팅, 교원양성교육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교육정책'과 '교육조직 및 경영'이 가장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고(임연기·김훈호, 2018), 연구주제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교육행정 이론을 다룬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김병찬·유경훈, 2017).

나는 한국 교육정책의 실제 문제들에 착안하여 연구 주제를 설정해왔다. 예컨대, 최근의 교육부 정책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 관련된 현상에 주목하였고, 학교 현장의 교육 문제 개선에는 관심이 적었다. 이를 두고 교육부 정책 경험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선호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교육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이해에서 한 걸음 떨어져 연구함으로써 실제와 연구의 괴리(현장성 저하)를 낳을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대개 연구주제와 관련된 해외 문헌과 이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국내 문헌을 검토하는 순서를 따르는데, 여기에서 또한 외래 이론 종속성의 단면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어떤 연구방법을 사용하는가?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논리 실증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양적 연구방법과 현상학과 해석학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 중 양적 연구방법이 대세이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교육행정학 연구에 발표된 논문 중 양적 연구의 비중이 55.2%, 문헌연구가 26.7%, 질적 연구는 14.5%, 혼합방법연구는 3.6%에 불과하였다(임연기·김훈호, 2018).

나는 각종 통계자료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인 연구방법을 의존하여 현상을 기술하고 변수간의 관계와 효과를 분석해왔다. 방법론의 발전에 힘입어 기술통계나 단순 상관관계 분석이 아니라 가능하면 변수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고급 통계방법론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양적 연구방법 사용은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통하여 훈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용이하게 연구논문을 생산할 수 있다는 효율성의 논리가 저간에 작동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2000년대 이후 각종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개인 수준의 중단 연구자료와 단위학교 정보공개에 따른 학교 수준의 통계자료는 양적 연구의 활성화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어찌 보면 이제는 자료가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지 못할 정도이다. 동시에 이는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자료 취득의 용이성과 통계방법론의 발전이 결합하여 양적 방법론 위주의 연구 풍토를 낳은 것이다.

연구자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기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 논문을 생산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2.3. 교육행정학 연구 활동의 외부 환경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이 속한 조직의 제도와 학문공동체의 풍토와 문화라는 제약 상황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연구 활동의 외부 환경으로 제도적인 환경과 문화적인 환경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제임용과 승진, 정년 보장 등 인사행정에 활용되는 교수업적평가 제도는 대학 교수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이 미션(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과 상관없이 연구논문 위주로 업적평가를 실시하고 논문의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는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신정철, 2011). 특히 신입교수에게는 과도한 수준의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도 국제학술 논문을 우대하거나 의무화하는 경우까지도 있다.

따라서 신입교수 임용 후 3년간의 논문 생산성은 대학에서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의 질 보다는 논문의 양이 중요하므로 신입 교수들은 사활을 걸고 논문 생산에 매달리게 된다. 양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논문의 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연구자는 실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양적 연구에 힘을 쏟게 되는 것이다.

교수업적평가에서 국제학술논문 우대 또는 의무화 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국제학술논문은 주로 영미권 또는 유럽의 학회를 중심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저널에 논문을 신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는 연구문제의 발굴이 관건이다. 결국 연구문제를 설정할 때부터 ‘나의’ 또는 ‘우리의’ 관심보다는 ‘그들의’ 관심이 될 만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됨으로써 토착화된 연구보다는 외래화된 연구논문을 양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제학술논문을 강조하면 할수록 국내 연구자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와 맥락에서 한걸음 떨어진 연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학문공동체의 풍토라는 문화적 환경이 연구자의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매우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허병기(2003)는 교육행정학계에 학문적 업적에 관한 상호 관심과 비판의 문화가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 넓게 보아서 우리나라 교육학 학문공동체의 특성을 탐색한 양미경(2011)은 학회지 인용 분석에 기반하여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육행정학 연구 논문의 경우(2010년 기준), 전체 인용문헌 수 대비 자체 학회지 인용 회수 비중이 7.3%였다. 이 수치가 교육학회의 여타 분과학회 중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교육학 분과학회별로 보았을 때 대체로 자체 활용도가 높지 않고, 교육학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교육심리연구는 교육학회의 여타 분과학회지 인용보다 한국심리학회지를 더 많이 인용하고 있어 모학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는데(양미경, 2011, p. 24), 이는 마치 교육행정학 연구 논문이 교육학회의 여타 분과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보다도 행정학회에서 발간되는 논문을 더 적극적으로 인용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¹⁾

교육행정학 학문공동체 내에 상호 관심과 비판의 문화가 취약한 이유는 교육행정학회가 양적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구심력이 미흡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교육행정학회는 교육학회 산하 분과 학회 중 회원 수 규모면에서 압도적으로 최다인 것이 특징이다(2018년 현재, 정회원만 1,500여명). 거대 규모의 학회에 속한 개인 연구자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보니 학문공동체 내에서 학문적 관심의 공유와 소통의 기회가 빈번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상호 인정과 건전한 비판, 치열한 지적 경합 역시 체감하기 어렵게 된다.

2.4. 짧은 글을 마치며

올해 초 교육행정연구 워크숍의 주제로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의 문제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고민스러웠다. 결국 기존의 문제 제기를 기반으로 실제로 내가 수행해 온 연구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피상적인 문제점들에 개인 경험을 덧붙이는데 불과한 글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고무적인 사실은 학회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고, 그것이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교육행정학 메타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쟁을 둘러싸고 대안적인 제안도 일부 제시되고 있다(변기용, 2018).

1) 현재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행정학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회지 인용 분석 방법을 시도해 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도 교육행정학 연구자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심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건전하게 비판하는 학문적 풍토는 개인들의 이러한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참고문헌

- 김병찬·유경훈(2017). '교육행정학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 동향 특징 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4), 173-200.
- 변기용(2018).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4), 1-40.
- 신정철(2011). 국제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요구와 과제: 대학의 교육 및 학술활동에 대한 담론.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학회.
- 신정철(2014). 대학원과정의 의미와 학문탐구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담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 신현석(2017). 한국 교육행정학의 정체성: 이론 탐색의 의의와 지향성. 교육행정학연구. 35(1), 195-232.
- 양미경(2011). 학회지 인용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학 학문공동체의 특성 탐색. 교육학연구. 49(3), 1-31.
- 이종재(2002).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이론 수립의 현황과 좌표. 교육학의 학문적 이론 수립의 현황과 발전 좌표.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교육학회.
- 임연기·김훈호(2018).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동향 및 활용 지식의 특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1), 355-382.

장상호(2005). 학문과 교육(중 1) 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상호(2005). 당신은 교육학자인가. 교육원리연구. 10(2), 1-21.

허병기(2003).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21(1), 375-396.

3.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지식기반: 사회적 맥락의 관점

신정철(서울대학교)

3.1. 학문 탐구와 사회적 맥락

하나의 학문, 특히 사회과학은 사회적 맥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과학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사실의 탐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은 사실 탐구를 바탕으로 지식을 축적하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러한 학술 탐구가 토대가 되어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제도로 정착된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발전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사회의 사회과학적 학술 탐구의 수준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사회과학적 지식들은 교육에도 활용되어 그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적인 학술 탐구를 수행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데 활용된다. 이것은 사회과학적 지식의 생산과 그에 근거한 정책 개발과 제도화 역량, 학교 교육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학문 발달 초기에 학자들은 외국의 발달된 학문을 배워서 이를 국내에 소개하는 것으로 학문 탐구를 시작한다. 학문 발달 초기의 연구는 결국 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빨리’, ‘정확하게’ 학습하여 이를 소개하는 수준의 연구에 머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학문 그 자체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높이고,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당 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해당 학문을 발전시킨 국가와 이를 수입한 국가의 사회적 맥락이 유사하다면 좋겠으나, 이와 같은 동질성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행히 학문 연구가 진척되면서 외국의 학문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된 학문과 이를 받아들인 사회 간의 간격이 좁혀지게 된다.

발표자의 경험에 의하면, 정책 개발을 하면서 외국의 사례,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를 연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고, 일본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적 맥락과 우리의 사회적 맥락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본의 사회적 맥락과 우리의 사회적 맥락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그 해석의 과정이 단순하다. 실제로 일본에서 채택된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괴리가 크지 않으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채택한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한 정책들은 현장과의 괴리가 상당히 심한 경우가 있다. 결국 교육행정학이 교육 문제의 해결과 교육 현장의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는 우리가 얼마나 사회적 맥락에 기반을 두고 연구하여 현실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3.2.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본 교육행정학 연구

교육행정학 연구는 해방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교육행정학 연구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가 소개되고 새로운 연구를 이끌어 가는 학술지, 그리고 교육행정학을 공부하는 학

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행정학 교재 등의 내용도 시간이 지날수록 풍부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육행정학이라는 학문 탐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수적 증가와 더불어 연구된 내용들의 질적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우리 교육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 현장의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행정학계는 상당수의 연구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 생산 그 자체를 위한 연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 해결이나 현장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자성의 소리도 높다. 이러한 지적이나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교육행정학 연구가 우리의 사회적 맥락에 기초한 문제의 발굴 및 해결 방안의 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의 학문 탐구가 ‘얼마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여러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들이 얼마나 국내에서 생산된 지식에 기초하여 연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들이 얼마나 국내에서 생산된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에도 상당한 오류가 있다. 예를 들면,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된 논문이나 책을 인용하지만,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된 논문들 자체가 대부분 외국의 문헌을 토대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논문이나 책이 외국의 문헌들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연구의 사회적 맥락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인용된 문헌의 출처를 통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행정학연구가 출간된 지난 1983년 이후 발간된 1,432편의 논문

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술지 출간 초기에는 전체 논문의 약 40%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된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전체 논문의 약 60-70% 정도가 국내에서 생산된 논문이나 책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권 외, 2018).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교육행정학 연구는 점차로 국내 지식기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을 놓고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지식 기반이 점차로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착근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연구들이 국내의 지식기반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연구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이론들은 여전히 외국의 이론, 특히 미국의 이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학 연구를 이끌어 가는 이론적 기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출간된 107권의 교육행정학 교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행정학 분야는 아직도 외국의 이론, 특히 미국의 이론들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황재운 외, 2018). 예를 들면, 2010년대에 출간된 교육행정학 개론서에 소개된 이론의 경우 약 98%가 외국의 이론이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것은 한국의 교육행정 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적 프리즘이 대체적으로 외국, 특히 미국의 교육행정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론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것은 교육행정학계 안과 밖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행정학 연구가 우리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현장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원인이나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향후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는 외국, 특히 미국의 교육행정학 이론을 직수입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새로운 이론 탐구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3.3.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본 교육정책 연구

교육행정학이 교육행정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관한 학문적 탐구를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교육정책은 이러한 학문 탐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교육문제 해결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이 우리 교육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실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행정학 연구를 통하여 현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교육행정학 연구는 주로 미국의 사회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된 미국의 교육행정학 이론을 수입하여 활용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학 연구가 우리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합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문 탐구를 통하여 현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해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연구는 출발점부터 상당한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교육정책 개발연구 영역으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교육정책에 관한 학술연구에 있어서도 연구 결과의 해석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연구 주제들의 현실적 맥락 속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수행한 정책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외국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고 귀국하여 곧바로 정책연구에 뛰어들어 신진학자들에게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점이기도 하다. 특히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책연구기관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다가 대학으로 옮기는 교육행정학 연구자들의 이동경로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계 내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지난 20여 년 간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경향을 뚜렷이 알 수 있다(안영은 외, 2017). 지난 20여 년 간 출간된 교육정책에 관한 학술연구 논문 355편을 분석한 결과 전체 논문의 약 80% 정도가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적인 제언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제언을 해야 할 정책연구의 경우에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연구들은 단순히 외국의 정책 사례들을 벤치마킹한 후, 연구자들이 추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여 외국의 정책 사례들을 적절히 변용하여 우리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의 상당수가 외국의 사례 분석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현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설명해 준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서는 정책적 쟁점이 된 이슈들에 대하여 별도의 설문이나 면담 등 교육현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책은 해당 주제에 관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그 정책 방향에 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를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할 경우에는 정책 실패에 따른 폐해가 크고, 그 고통은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충분한 연구에 기반을 두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의 사례들에 근거한 정책 차용이나 설익은 정책 아이디어들을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여과 없이 투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과학 탐구가 외국, 특히 미국의 사회과학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학문의 사회적 맥락화는 사회과학계의 커다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3.4. 사회적 맥락의 관점에서 본 학교의 이해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이유를 교육행정학의 핵심적인 탐구 대상인 학교 조직을 예로 들어 보자.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국,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 등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학교를 ‘교육의 장’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유럽에서의 학교는 당연히 교육을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는 국가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이 높은 교사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간다. 그에 비하여 미국에서는 학교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책임운영기관, 즉 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경영조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교장이 교사를 채용하고, 관리·감독하며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학교를 정부의 말단 행정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는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말단 행정기관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 같은 사회적 맥락의 차이는 교육행정학 연구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의 교육행정학 연구는 주로 교장의 학교 경영, 리더십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학교장의 소위 ‘경영’이나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교사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기능을 교장 직무의 핵심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교장 직무는 동료교사들이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학교 ‘경영’ 또는 교장의 ‘리더십’ 등을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행정학이 자리 잡을 공간이 크지 않다. 유럽에서는 학교를 관리 또는 경영하는 교육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교사의 수업과 관련하여 연

구하는 교수학(pedagogy)을 중심으로 교육학이 발전되어 왔다.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학교를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학교를 상급기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지시-명령의 체계 속에서 이해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사회적 맥락은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공문이 전달되고, 교사들이 잡무 처리에 정신이 없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행정학 이론들은 대부분 미국의 교육행정학 이론을 차용하고 있어 학교 경영, 리더십, 동기유발 등 소위 학교 경영학 이론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행정가들이 공부하는 이론은 주로 학교 경영에 관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행정가들은 상급기관의 뜻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행정 또는 교육행정가(교장)의 역할과 현실적으로 그들이 수행하는 직무 간에는 괴리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연수 등에서 배운 학교 경영 및 리더십 훈련 등이 교장의 직무 수행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법령 체계, 회계처리 등 말단 행정기관의 행정가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의 차이들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에서의 교육행정학 연구는 미국의 교육행정학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여야 한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행정학 연구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과 관계가 깊다. 학계 내외에서는 교육행정학자들이 지나치게 정책연구에 몰두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맥락에서는 학교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행정학자들이 지나치게 정책연구에 몰두한다는 비판은 교육행정학자들의 정책연구 수행 그 자체에 대

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학계에 대한 질타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현실에 바탕을 둔 이론 탐색, 그리고 그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야말로 교육행정 학계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3.5. 맺음말

발전된 사회는 수준 높은 사회과학적 지식 생산과 교육시스템, 그리고 정책 개발 및 제도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서 훈련을 받은 많은 교육학자들이 자신들의 학술연구 초기에는 일본의 교육학 연구에 대하여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성숙되어 갈수록 일본의 교육학 연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고, 일본의 교육학 연구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일본 학자들은 비록 외국 유학을 많이 가지는 않지만, 일본의 교육 문제에 천착하여 그들 나름대로 연구 주제를 발전시켜오고, 일본 교육문제를 해결하여 오늘날 일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학자들, 특히 미국의 교육학 연구에 지나치게 경도된 학자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미국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이론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문제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제시는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하거나, 문제의 진단과 처방 사이에 큰 괴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은 현재 교육행정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 핵심적 연구 주제의 설정, 이론과 현장의

괴리 문제 등 다양한 고민들과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미국에서 수입한 교육행정학 이론들이 교육행정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과학적 토대 하에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수준의 교육적 성취를 이룩한 현 시점에서, 복잡 난마하게 얽힌 교육 문제들을 미국에서 수입한 이론의 틀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행정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수입한 교육행정학 이론들의 설명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옳다고 믿고 적용해 온 교육행정학 이론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줄 수 없다면, 학자적 양심의 소리에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 안영은·김준수·강대용·신정철(2017). 교육정책연구의 동향 분석: 2011-2015년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5(2), 253-274.
- 이진권·황재운·안영은·신정철 (2017).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토착화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111-138.
- 황재운·이진권·안영은·신정철(2018). 한국 교육행정학 지식기반의 변화 분석: 교육행정학 개론서의 이론 및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6(3), 145-175.

4.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이분법적 배타성 극복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을 중심으로2)

변기용(고려대학교)

4.1. 서론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관련한 논의는 그간 교육행정학계에 서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다(예컨대 이종재, 2002; 정태범, 2002; 임연기, 2003, 2014; 이일용, 2002; 강영삼, 2005, 서정화, 2008, 신현석, 2017에서 재인용).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문제는 이러한 논의들이 매번 유사한 문제점을 반복해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과 처방에 대한 학계 차원의 지속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교육행정학의 존재 이유와 필요한 교육행정학 이론의 성격, 이를 생성·축적하는 연구전략에 대한 심층적·체계적 논의는 없이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피상적 진단과 처방에 그치고 있었다는 점이 논의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었던 것이다. 생산적 토론을 통해 쟁점이 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학문공동체 내에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한 폐쇄적 담론구조’이다. 즉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한 폐쇄적 논의 구조가 교육행정학의 존재이유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2) 본 요약본은 필자가 2018 안암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명의 발제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이 필요하시면 안암교육학회 홈페이지(<https://asse.jams.or.kr>)를 방문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적 담론 지형을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한국 교육행정학의 고질적 문제점인 ‘이론과 실제의 괴리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은 바로 우리 학문공동체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이분법적 배타성의 탈피 혹은 완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문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 교육행정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적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 교육행정학계가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대안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4.2. 교육행정학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 현상과 원인 분석

4.2.1. 실체적 논의가 결여된 ‘이론(학문) 지향적 연구’에 대한 막연한 가치 부여

현재 우리 교육행정학계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론(학문)지향적 연구는 실천(응용)지향적 연구보다 우월한 것”이라는 일종의 학습된 편견이 이제까지 교육행정학의 이론과 실제와의 괴리를 가져 온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론(학문)지향적 연구가 무엇인지’ 혹은 ‘교육행정학에 필요한 이론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러한 실체적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론지향적 vs. 실천지향적 연구”라는 논의 자체가 사실상 내용이 없는 “사이비 논의”의 속성을 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엇이 교육행정학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이

론'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학문공동체내의 학습과 성찰 과정 없이 실체도 없는 '이론' 혹은 '이론 지향적 연구'라는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문하게 한다.

4.2.2. 정부-대학 간, 대학 내 조직 간 정치 경제: 평가기준의 양화와 양적 연구의 오남용

기성 연구자들과 학문 후속세대들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혹은 대학 랭킹 평가 기제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따라 사회화되고, 이에 따라 이들의 관심도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전문가로서 본래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예컨대 부당·부적절한 현실의 개선, 정부 혹은 사회의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과 도전)보다는 평가 기준이 요구하는 (주로) 수량적 과업을 자신에게 가장 편리하고 용이하게 충족하는 기술적 테크노크라트로 전략하게 만드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변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 승진이나 취업 등에서 논문 편수가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오남용(예컨대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수를 바꾸어 가며 논문을 “찍어 내는” 행태)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신현석, 2017). 문제는 단순히 고급통계를 활용하는 연구의 증가라는 현상 자체보다는, “무엇을 위해 해당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문제인식 없이 논문을 위한 논문을 작성(소위 “논문 공장”)하는 행태가 학문공동체 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타인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한 “변인 정의의 타당성” 문제, “모형 설정과정에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의 철저한 분석” 등 연구과정의 엄격성이 고급통계 활용 논문 심사자 풀의 한계 속에서 과연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가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 주제와 채택

된 양적 연구방법의 합치 등 양적 연구의 교육행정 연구방법으로서의 상황적 적절성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엄밀한 평가의 잣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렇게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제도적·환경적 맥락을 사상한 일반이론을, 현실 개선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추구하면서 논문을 양산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된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4.2.3. 질적 연구 방식의 경직성 문제: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만 수행될 수 있다.

교육행정학계에서 질적 연구는 “대개 구성주의에 철학적 기반을 두고 연구의 초점이 개인 혹은 집단에게 맞추어지면서 각 개인 혹은 집단이 구성하는 ‘의미’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는 해석주의(구성주의)에 기초한 질적 연구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 결과 실천성을 중요시하는 응용학문으로서 교육행정학이라는 학문적 성격에 맞도록 질적 연구의 보다 다양한 유형들을 교육행정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교육행정학에서 수행되는 질적 연구가 같은 교육학 분야인 교육인류학(질적 연구의 문화기술지적 관점)이나 교육철학(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관점)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 질적 연구는 반드시 해석주의(구성주의)적 관점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는 지배적 견해가 형성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이렇게 질적 연구가 지나치게 해석주의(구성주의)적 관점으로만 치닫게 되면 모든 지식들은 맥락 특수화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학에 근거해서 어떠한 구체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4.2.4. 교육행정학의 가치지향성: 교육행정학의 인문학적화

교육행정학은 응용학문인 교육학 중에서도 가장 응용지향적인 학문으로서 선형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상적 상태에 대한 규범적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는 인문학으로서 ‘교육철학’과 사회과학으로서의 교육행정학의 경계를 흐리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필자의 견지에서 보면 교육행정학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능한 최선의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제약 조건을 감안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본령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5. 학문의 지속적 분화 경향: 분과 학문 분야 간 연계 협력의 결여와 연구결과의 과편화

협업과 융·복합이 원칙이 되지 못하고, 모든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용광로라고 할 수 있는 교육학 분야에서조차도 세부 전공 분과학문 분야들 간에 협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작금의 현실은 바로 이론과 실체가 괴리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3. 상이한 관점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대안적 지점의 모색

4.3.1. 대안적 관점의 기본 견해

교육행정학 연구에서는 ‘학문성’과 ‘실천성’이 모두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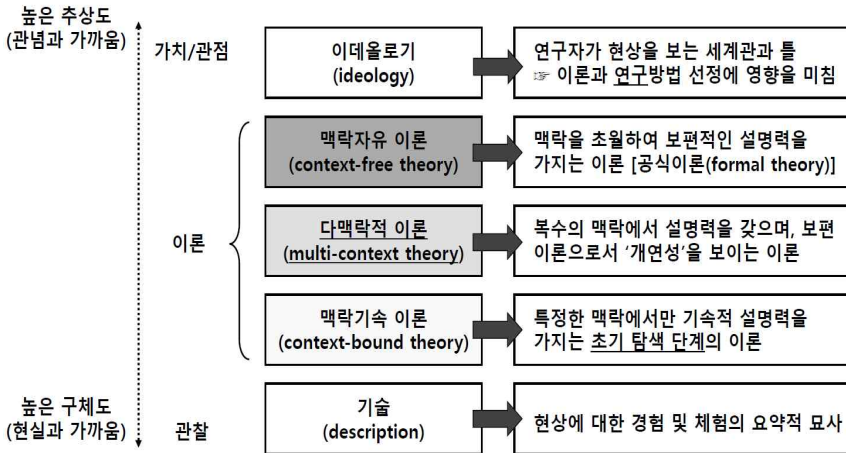
“이론지향적 연구(혹은 지식)가 실천지향적 연구(혹은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단순한 주장은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기

존의 탐구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여적 탐구 패러다임(participatory inquiry paradigm)을 주창하고 있는 Heron & Reason(1997)은 다음과 같은 “앎의 네가지 방식(four ways of knowing)”을 제시하고 있다: (1) 경험적 앎(experiential knowing): 사물, 현상, 인간에 대한 직접적 접촉과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앎; (2) 표상적 앎(presentational knowing): 경험적 앎에 기초하지만, 그래픽, 음악, 음성, 예술 형식 등에 상징화되어 있는 세상의 이미지와 중요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앎; (3) 명제적 앎(Propositional knowing): “무엇은 어떠한가”라는 개념, 명제, 이론적 형식을 가진 앎(우리가 흔히 이론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 (4) 실제적 앎(Practical knowing): 숙련된 기술(skill)이나 역량(competence)으로 나타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는 것(“knowing-how” Greenwood & Levin, 2005)”으로서 앞서 언급한 3가지 유형의 앎을 바탕으로 함.

이들은 이 네 가지 유형 중 “실제적 앎”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창하는 참여적 탐구 패러다임의 경우 연구를 하는 목적이 바로 현상을 개선하려는 실천(실제적 조치)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증주의는 물론 구성주의(해석주의)와 비판이론의 경우에도 주된 관심은 “명제적 앎”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유형의 지식이 보다 중요한 것인지는 선형적인 것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학문의 성격(존립이유)과 탐구의 패러다임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토착적 이론 구축을 위해 교육행정학에 가장 필요한 이론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 지식’이나 지나친 ‘해석주의’에 경도된 특수화된 지식이 아니라) 적절한 조직적·상황적 맥락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중범위 이론’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이론의 생성·축적을 위해서는 질적·양적 연구의 상보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림 1] 이론의 중층구조 개념도

출처: 권향원(2017:16)의 [그림 1]

이론은 추상화 정도를 기초로 가장 추상화 정도가 낮은 '기술(description)'부터 가장 높은 '이데올로기'까지 연속선상에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추상성을 가진 다맥락적 이론과 맥락자유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에서만 기속적 설명을 가지는 특수이론인 '맥락기속 이론'을 현장 작업을 기초로 풍성하게 생성한 후, 이를 후속적 작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일련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맥락기속 이론을 생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귀납적·질적 연구가 다맥락적, 맥락자유 이론을 생성하는 후속 단계로 갈수록 연역적·양적 연구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 탐구 패러다임별 기본 신념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기본 입장

구분	실증주의 (Positivism)	후기 실증주의 (Post-positivism)	비판이론 (Critical theory)	구성주의 (Constructivism)	참여적 (Participatory)
존재론	'순진한' 실재론 실재는 존재하며 파악 가능	비판적 실재론 실재는 존재하나 불완전하게, 개연적으로 파악 가능	역사적 실재론 사회·정치·문화·경제적, 인종/성별 가치에 의해 형성된 가상적 실재; 시간에 따라 명확해 짐	상대주의 지역적이고 맥락의존적인 공동으로 구성된(co-constructed) 실재	참여적 실재 인간의 인식과 주어진 연구대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주관적-객관적 실재
인식론	이원론/객관주의의 연구결과는 진실	수정된 이원론/객관주의; 연구결과는 진실일 수 있음	상호작용적/주관주의; 연구결과는 '가치'에 의해 매개	상호작용적/주관주의; 연구결과는 공동으로 생성	주어진 연구대상과 참여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판적 주관주의
방법론	실험; 서베이 조작적 가설의 검증 주로 양적 방법	실증적 사례연구 수렴적 면접; 다원화 기법(triangulation) 질적 연구방법(일부 양적 연구)에 의한 연구 쟁점의 해석	대화법/변증법적 연구 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적 지식인"이다	해석학/변증법적 연구 자는 탐구되는 세계 속에 있는 "열정적 참여자"이다	실행연구 ; 협력적 탐색 전문가로서의 외부연구자와 경험적 지식을 축적한 현장 전문가 간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생성적 지식창출

출처: Lincoln, Lynham, Guba(2011): Lincoln, Lynham, Guba(2011); Heron & Reason, 1997; Healy & Perry, 2000

4.3.2.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해석주의)적 관점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탐구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수행될 수 있다.

양적 연구가 "비교적 단순한 인과적 효과"에 관심을 갖는다면 실증적 사례연구는 "복잡한 인과관계의 규명"이 우선적 연구관심임을 언급하면서 해석적 사례연구와 구분되는 실증적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영철(2009)은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론에, 인식론적으로는 구성주의에 뿌리를 둔 비판적 실재론에 입각하여 적절히 수행된(실증적) 사례연구는 과학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의미 있는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실재론에 기초한 실증적 사례연구는 지나친 해석적 패러다임에 경도되어 연구

대상의 구성적 성격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연구결과의 객관성이나 그에서 도출되는 잠정적 가설과 이론을 비교·검토할 근거를 상실해 버린 ‘상대주의’와는 다른 관점을 취한다. 즉 연구대상에 대한 존재 가설의 설정과정에 대해 구성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도 연구대상의 실제성을 전제함으로써, 연구자에 의해서 구성된 인과적 메카니즘이 실질적인 사례연구 결과와 얼마나 조응하는지를 판단해 볼 근거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과학주의와 구성주의적 상대론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4.3.3. 대안적 관점에 따른 연구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

우리 교육행정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범위 이론’의 생성은 무엇보다 교육행정 현장에서 우리의 고유한 개념을 탐색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근거이론(grounded theory)과 같은 귀납적-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현장으로부터 우리의 행정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채집하고, 이를 통해 이론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Greenwood & Levin (2007)이 주창하고 있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도 중범위 이론 개발을 위한 질적연구의 범위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매력적인 접근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행연구는 (1) 전문가로서의 외부 연구자와 (2) 오랜 기간 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체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내부 구성원들 간에, (3) 협동적이고 반복적 상호작용을 통해 실행 가능한 지식을 공동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Greenwood & Levin, 2007)라고 할 수 있다. 응용 지향적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나치게 ‘이론지향적 연구’에만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실제 학교와 대학의 교육 현실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 온 기존의 우리 교육행정

■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학문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향 탐색

학계의 연구의 편향성과 이에 따른 연구방법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5.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풍토에 대한 성찰

송경오(조선대학교)

1. 자신의 일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성찰(省察)’이라는 능력은 지식이 아무리 쌓여도 저절로 생기기 어려운 독특한 역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웠지만 성찰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접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식공동체인 학회가 자신들의 학문적 풍토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학회가 어느 정도 성숙하였음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특히, 지난 50년간 여러 형태의 지적활동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교육행정학계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졌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간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풍토에 대한 비판은 그저 친한 학자들 간에 나누는 담소의 소재 정도로만 여겨왔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태도를 진지하게 되돌아 볼 수 있었다. 또한 10여 년간 교육행정학계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경험한 학문적 풍토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었다. 나는 이 짧은 글에서나마 교육행정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향을 비판하고, 학회의 생산적인 풍토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최근 들어 교육행정학계에 널리 퍼져 있는 문제의식 중 하나는 교육행정학 연구가 지나치게 이론·규범적 성격을 지녔고, 이러한 편중된 경향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나는 세대를 아우르면서 교육행정학이 지나치게 이론·규범적 연구경향을 보인 적이 없었다고 평가

한다. 한국의 교육행정학은 발전국가의 패러다임 하에서 이에 봉사하는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교육행정학은 정책·실무 지향적 성격을 강조해왔고, 오히려 이론적·철학적 성격이 자라지 못한 풍토가 되어버렸다. 교육행정학의 정책·실무 지향적 성격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정부발주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교육행정의 주요한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행정학계의 이러한 학문적 성격은 지금 시기에 이르러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하나는 한국의 교육행정학이 학문으로서 미래에 대해 조망하고 통찰하는 성격보다 도구적·수단적 성격이 강해졌다. 어떠한 학문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 과업은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 생산과 전수'이다. 지난 60년간 교육체제와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했고, 이 과정에서 교사-학생/학부모-정부간 교육주체들은 갈등과 반목을 이어왔다. 이러한 교육현실 속에서 교육행정학이라는 학문은 교육주체간에 어떻게 협력을 이끌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하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한 절차나 제도에 대해 선구적으로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교육행정학계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선도적으로 제기하기 보다는 정부관료나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정책적 아젠다에 이끌려 정책집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매뉴얼을 생산하는 일을 맡아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계 내외 일부에서는 교육행정학을 점점 기술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관변학문으로 정체성을 규정한다. 교육행정학회 다수 학술논문들이 정부기관 연구용역 중심의 내용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비학술적인 논문들이 학회 내에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학문후속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문태도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은 교육행정학이 관변학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교육행정학자들의

전문가로서 정책적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발달과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는 교육정책의 문제들을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이전과 달리 전문가들의 선부른 지식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도전 앞에 교육학자들은 현실 적실성이 떨어지는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이전과 유사하게 성급히 처방함으로써 지속적인 정책실패에 일조하고, 정책적 판단에 의구심을 불러왔다. 이러한 경향은 김용 교수(2014)가 분석하였듯이 관료의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에 기초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을 가져왔고, 정책연구자들의 역할이 새로운 정책을 창안하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과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경향이 크게 차지하는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3. 최근 만연해 있는 교육행정학의 또 다른 풍토는 학문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미국의 논리실증주의적 사고를 그 바탕에 인식론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절차와 방식을 통해 교육행정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교육행정학에서 과학성을 강조하는 연구풍토는 두 가지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연구방법론의 고도화 경향이다. 대체로 개량적이고 행태적인 경험연구를 중시하면서 미국 교육학에서 발달시킨 양적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 분야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도출한 결과를 정당화한다.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통계적 타당성이 내용적 타당성까지 담보해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심사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면서 도출된 연구결과와 정책제언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과학성 강조가 불러 온 교육행정학의 또 다른 연구풍토 중 하나는 교육행정학 연구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믿음이다. 이들의 입장에서 연구는 사실(fact)의 영역이고, 가치(value)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 여긴다. 따라서 교육행정학의 연구는 측정과 검증이 가능한 사실(fact)의 영역에 머물러야 할 뿐 연구자의 가치나 규범적 선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행정학이 다루어야 할 교육문제는 대부분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교육행정학에서 다루고 있는 행정현상들을 생각해 보라. 대표적인 예로 교육개혁의 과제들은 수많은 윤리적 논쟁과 가치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합하고 실천성을 갖는 처방이 필요한데, 가치문제를 회피하면서 교육행정학이 문제해결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란 어렵다.

4. 그렇다면,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향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이 기회를 빌려 짧은 소견이나마 피력해보고자 한다.

우선, 교육행정학의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발 딛고 선 교육현실의 치열하고 심각한 문제상황을 탐구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행정학이 속해 있는 사회과학은 과학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토마스 쿤이 이야기했듯이 일반 과학분야가 비교적 합의된 지식체계와 널리 인정된 접근방법과 새로운 작업을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는 반면, 사회과학은 공인된 지식체계나 탐구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과학의 보편적 과제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궁구하는 일이지만, 사회과학의 주요 질문은 '무엇이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있다. 교육행정학자들 앞에 놓여 있는 교육현실에서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Dewey(1938)는 탐구란 문제상황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 그것을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언급한다. 행정학자

Mills(1959) 또한 학자란 사회학적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 삶의 경험들을 학문적 탐구과정으로 엮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Hirschmann(1981) 또한 사회과학자들은 항상 도덕적으로 깨어 있고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에 비로소 무의식적 융합이 가능하다고 언급합니다. 이렇듯 교육행정학자 자신의 삶과 융합된 문제 상황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현실과 유리되지 않을 때 쏟아지는 연구방법론에 휩쓸려 사소한 연구주제에 매달리지 않는 연구를 할 수 있다. Jenks의 논평 “어찌하다 만족할 만한 방법과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맞추어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연구자들을 사소한 것에 매달리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책임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김용(2014)의 인용은 교육행정학자들이 밭 딛고 선 교육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 못하는 교육행정학계에 자성의 울림으로 삼을 만하다.

둘째, 교육현실의 심각하고 치열한 문제 상황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교육행정학자는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일부 교육행정학자들 중에는 교육문제 해결에 적합한 실천적 처방을 제공하기 위해 실체 없는 철학적이고 규범적 성격의 이론(학문)지향적 연구를 지양하고 실천(응용)지향적 연구를 통해 교육실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교육행정학계가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이론지향(개발)’에 인색했다고 평가한다. 교육현상의 고유성을 전제로 교육주체들의 행위의 의미를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파악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이 극히 드물었다. 복잡한 정책환경 하에서 어떠한 규범적 논거와 가치기준에 따라 정책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활성화되지

않아 다른 주체들에 의해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저 방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교육행정제도 하에서 자기소외를 경험하며 편견과 억압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비판하고 폭로할 수 있는 학문적 인식론과 방법론이 편협하여 관련 논의가 소홀하였다. 교육행정현상에 대한 인문학적·철학적 접근이 교육행정학의 실제성과 처방성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다른 인접학문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학문적 태도는 교육행정현상에 대한 문화해석이나 역사연구, 비판이론이나 윤리연구를 빈약하게 만들었다.

교육행정학이 교육문제 해결에 적합한 실천성을 높이는 길이 단순히 행정실무가들에게 당장의 묘안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 않다. 적실성이 높은 이론은 문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의 맥락에 대한 이해 속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현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문제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맥락 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역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오히려 실재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럴 때 이론은 교육실제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행정학의 문제는 지나치게 이론지향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실제와 결부되지 않은 탈맥락적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의 문제이다. 오히려 교육행정학의 응용적 및 처방적 성격에 대한 강조가 연구방법의 선택에서 실증주의에 입각한 방법론만 중시한 결과가 초래한 문제인 것이다. 그간 학회는 계량분석을 사용한 실증연구나 처방연구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이해나 정책담론의 철학적 연구에 대해 소홀했다. 이론이란 교육실제의 외부에 존재하는 낯선 섬이 아니다. 교육현실과 교육주체들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탐구를 통해 이러한

경험에 의미가 부여함으로써 실제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이론의 역할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칼 야스퍼스가 대학에서 생산해야 하는 지식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학에 언어학만 있고 철학이 없다면, 기술과 실습은 있되 이론이 없다면, 오직 끝없이 사실들만 존재하고 그것을 체계화한 사상이 없다면, 대학은 대학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 중략 …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주관적 판단으로 필요한 지식을 재창조해내는 능력이며 사실의 핵심을 파악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P. 71).”

5. 끝으로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서 교육행정학의 지식공동체적 성격 강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학문의 지식공동체는 건전한 학문적 논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교육행정학이 다루는 학교현장 및 정책현상에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근본 모순이 존재한다. 교육에서의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 대립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교육행정학이 생산해야 할 지식의 유형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술적 행정지식과 노하우가 우선시 되어야 할지, 해당 정책대안이 가치로운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할 수 있는 준거를 만들 수 있는 사회학적 안목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 각각의 효용성에 대해서 논의해보아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학이 현재 학교현장과 정책현장으로 비판받고 있는 교육행정이론의 현실 적실성과 이론의 엄밀성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행정학자가 어떤 연구자가 되어야 할지(수동적 관찰자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능동적 참여자로서 연구자의 경험을 이론화할 것인가

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몇 년 전 교육행정학회에서 다룬 적 있던 교육행정학의 한국화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학문적 보편성보다 한국 교육환경이 제공하는 고유한 특수성에 기반한 이론화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사실, 이 짧은 글을 쓰면서 어느 연구논문을 작성할 때보다 강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10여년을 교육행정학계에서 학술활동을 하였으니, 앞서 성찰한 교육행정학 학문적 태도로부터 나조차 자유롭지 못한 것이 하나의 이유요, 앞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무감의 무게가 다른 하나의 이유다. 막스베버가 업(業)으로서 학문하는 사람의 소명(召命)에 대해 강하게 주장한 이유를 어렵풋이나마 실감하는 요점이다.

참고문헌

- 김용(2014). 교육정치학자의 현실참여. 한국교육정치학회 2014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자료.
- Kuhn, T. S. (1996). 과학혁명의 구조(김명자 역), 까치글방.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Hirschmann, Albert O. (1981). Morality and the social sciences: a durable tension. In *Essays in Trespassing Economics to Politics and Beyond*, 294-30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s, C. Wright.(1959).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6. 교육행정학 연구: 지식사회와 정체성 위기

신정철(서울대학교)

6.1. 교육행정학의 실천지향성과 정체성 위기

교육행정학은 학문의 특성상 교육학의 타 분과학문에 비하여 현장성과 실천성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행정학자들은 이론적 주제뿐만 아니라 실천적 주제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학문 탐구를 해 왔다. 지난 10여 년 간 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춘계, 추계, 연차)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경향이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지향적 연구는 학자들로 하여금 학술적인 주제에 대한 향수를 자아내고, 지나치게 실천적인 주제들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자기성찰을 하게 한다. 교육행정학회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학회는 대체적으로 4년 또는 5년 단위로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자기점검을 해 왔다. 대체적으로 “반성과 과제”, “성찰과 방향” 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들은 자기 점검에 초점을 둔 학술대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점검의 과정은 학자들이 두 가지 지향성—이론과 실천—의 끊임없는 점검을 통하여 이론과 현실의 접목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들은 최근 학자들의 적극적인 개발연구(development research) 참여와 관계가 깊다. 지식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며,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심지어 정책의 집행을 연구자들에 의뢰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기존에 비하여 보다 풍부한 연구비 지원 속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개발연구는 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많이 제약하는 것이 사실이다. 연구비를 제공하는 측에서는 사회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연구를 요구하고, 연구자들이 소속된 대학에서는 연구 활동을 통한 대학의 재정을 확충을 도모한다. 결국 상당한 수의 대학 교수들은 학자로서의 정체감(academic identity)을 개발연구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문적 자아정체감 위기는 오랜 학술적 전통을 가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자양성의 전통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학자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한 수준에서는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specialist 또는 professional로 불려도 무방하다)로 불린다(신정철, 2014). 이들이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준이 되면 연구자(researcher)로 부를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을 발달시켜 스스로를 교육자로 규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교육자(educator)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는 물론이고, 자신의 학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할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학자(scholar)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자로서의 성장과정은 대학 교수들의 인사행정 시스템에도 일부 반영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약 6-7년 정도의 박사후 연구과정(habilitation)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후에 교수(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겸 연구자)에 임용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이후(대체로 5-6년 기간이 소요됨)에 신분이 보장(정년 보장)되고, 전문적인 연구자, 행정가, 또는 교육자의 길을 걷도록 한다.

이러한 유럽 및 미국의 상황에서는 지식사회의 진전과 실천적 연구

개발비의 급증이 학자들의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물론, 최근의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에 관한 논의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유럽과 미국 역시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학문 탐구의 전통이 남아있고, 연구자들의 규모(pool)도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실천적 연구를 선호하는 연구자들(knowledge professional)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풀이 작고, 대부분이 박사학위 취득 이후 곧바로 실천적인 연구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즉, 신진학자 대부분이 박사학위 취득 이후 실천적 연구에 매몰되어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 주제를 탐구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전문가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학의 교수직을 수행하더라도 연구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지도하기 어렵고, 대부분 석사 졸업생들을 해외 대학에 유학시킨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수의 약 40% 정도가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6.2. 지식사회의 성장과 지식전문가집단(Knowledge Professional)의 등장

이러한 연구생태계의 중심에는 지식사회의 성장과 맞물려 급증한 연구개발비가 위치하고 있다. 참고로 경제개발기구인 OECD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를 순수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이러한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발연구(development research)에 대한 비중이 60% 이상으로 미국, 일본과 함께 개발연구에

대한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 해당한다(Shin, 2013). 다시 말하면, 순수연구 및 응용연구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개발연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연구자들의 역할이 변화하게 된다. 개발연구에 치중하는 연구자들은 연구에 직접적인 시간 투자를 줄이고, 연구비를 획득하고, 관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활동, 즉 연구관리(project management) 활동에 대한 시간투자를 늘리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기 보다는 발주자가 제시한 문제의 기술적 해결 방안(technical solution)의 개발에 역점을 둔다. 그러나 현상의 탐색과 이론화에 바탕을 두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단기적 처방에 집중하여 결국은 사회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처방적 개발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자들은 자신의 처방을 정치권과 연계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관료 및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활동의 정도가 심해지면 정치와 연구의 관계가 모호해지게 된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직접 정치·행정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사회에서는 이러한 연구자들을 흔히 정치와 교수의 합성어로 ‘polifessor’라 부른다. 물론, 연구자가 정치행정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은 자신의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에 직접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등 연구에 있어서 금기시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적절히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연구와 정치 둘 중에서는 가지를 선택해야 하지만, 한국의 대학사회는 이들 ‘polifessor’들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들을 보호하거나 후원하기도 한다.

지나친 개발연구 참여는 연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적 이상과도 거리가 있다. 대학들은 연구를 통한 교육(research-driven teaching)이라는 이상에서 벗어나 사회 발전에 직접 기여하면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연구(개발연구)에 치중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산학협력단이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모든 대학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직접적인 수요에 대하여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이 보편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학문분야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소들이 활발하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에도 매년 정부의 정책연구과제가 발주되고 있고, 2018년 현재 15개의 '정책'중점연구소들이 설립되어 정부의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학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들의 성격도 많이 바뀌었다. 국책연구소들은 대학이 담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중추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설립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책연구소들은 자체적인 연구 기능이 위축되고, 연구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 기관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6.3. 교수직과 정체성 위기

대학들은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경험자를 선호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경력 패턴은 “박사학위-국책연구기관 연구원-대학교수”라는 자연스러운 경력 패턴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경력 패턴은 대학 교수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교수들은 순수 또는 응용연구보다는 개발연구에 익숙한 연구자들로 대체된다. 개발연구의 특성상 연구자들은 동료적 연구자(colleague)라기 보다는 연

구책임자를 정점으로 한 상하구조(top-down)에 놓이게 된다(Shin, 2013). 또한 연구의 질적 수준보다는 발주처가 제시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데 더 역점을 둔다.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깊이가 없음은 물론이고 발주처의 선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편협한 사고를 확대 재생산 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때로 연구의 결과를 침소봉대하여 ‘과감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이들이 정치권력과 연계된 경우에는 그들의 정책적 제언이 현실 정책으로 입안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과정 및 결과들은 흔히 학술적 성격의 형식을 띄고 학술적 성과로 발표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각종 정책 포럼, 세미나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상당 부분 학술적이라기보다는 학술행사의 형식을 띤 유사 학술 행위 성격의 행사들이 점차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정부의 부처, 국회, 지방정부, 국책연구기관 등 각종 정책 관련 기관들이 후원자 또는 공동주관자로 등장하는 행사들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다. 젊은 학자들이 유사 학술 행위에 익숙해지면서 자신의 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학술 활동의 본질에 관하여 혼동하게 되고, 이러한 학술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학술생태계는 점차로 황폐해진다. 또한 이들의(사회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한다) 훈련된 비전문성은 정책의 깊이를 떨어뜨려 그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더 염려스러운 것은 학문 후속 세대들이다. 학문 후속 세대들, 특히 박사과정 학생들은 수업을 통하여, 그리고 교수와 더불어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학문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연구 경험을 축적한다. 이것은 개발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박사과정 학생들이 교수들의 개발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들은 개발연구에 필요한 사회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연구는 순수 또는 응용연구와는 달리 연구 발주처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에게 학문의 자유는 애당초 사치스러운 이론상의 용어일 뿐이다. 결국, 개발연구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연구자로서 진정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기도 전에 개발연구자로서의 정체감이 몸에 배게 된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보다는 발주처의 만족과 후속 프로젝트 수주, 연구의 교육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획득, 사회에 대한 장기적 기여보다는 단기적인 문제해결 등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발표자가 보기에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이러한 현상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왜 더 큰 문제가 되는가? 이것은 학문적 전통의 역사와 학문공동체의 규모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일찍부터 학문 탐구를 시작하여 각 학문 분야별로 학문적 전통이 형성되어 있어 이러한 외부적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학문 공동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를 학문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이 흡수하면서 나머지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 전통 속에서 자신의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큰 지장이 없다. 사실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개발연구 또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 그것을 강조하는 대학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국가의 연구 시스템 안에서 개발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학문적 전통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을 한 방향(개발연구)에 매진하도록 유도하는 특이한 풍토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많은 폐해가 있고, 이것이 건전한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6.4. 교육행정학에 주는 시사점

위에서 언급한 현상과 문제점들은 비단 교육행정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과학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연구개발 정책을 구상함에 있어서 학문 분야의 특성과 학술 탐구의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기 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대학이나 연구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정책 방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선호, 역량, 관점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방향을 지향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다. 즉,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산업 생산의 연계가 강조되면서 개발연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지나치게 높다보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한 방향만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폐해는 순수학문보다는 응용학문, 특히 현장과 밀접히 관련된 응용학문 분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행정학 분야는 본질적으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학문 분야이다. 교육행정학은 학문의 성격상 실천지향성이 강한 학문이기 때문에 교육행정 연구자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정부의 정책 개발, 국회의 입법 활동 등 현실에 깊이 관여해 오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개발 연구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정책연구에 대한 이론과 실천적 지식을 축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교육행정학자들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학자들은 개발연구에 깊은 관여를 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학문적 정체성 위기를 교육학의 타 학문분야 보다 더 깊이 경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위에서 언급한 교육행정학의 소위 '자기점검'이 이뤄지도록

록 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자기 점검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학자들은 학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와 같이 상충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 가지 대안적인 방법은 교육행정학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개발연구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은 가급적 국책연구기관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연구자로, 순수 및 응용 연구에 관심이 많은 학자들은 대학의 교수직으로 진로를 유도하고, 대학의 박사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진로를 반영하여 학생 맞춤형으로 박사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대학원 교육의 방향이 이 두 경로(knowledge professional과 academic profession)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교육행정학계에서도 한 번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발표자기 판단하기에는 교육행정학은 개발연구가 가져다주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장 일찍 경험하는 학문분야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는 곧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기회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 신정철(2014). **대학원과정의 의미와 학문탐구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담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 Shin, J. (2013). Restructuring university systems: Multilayer multiple systems. In Shin, J. & Teichler, U. (Eds.), **The Future of the**

■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과 학문공동체 발전을 위한 방향 탐색

Post-massified University at the Crossroads: Restructuring Systems and Functions (pp.217-227). Springer.

7. 한국교육행정학회 발전 방안

김병찬(경희대학교)

7.1. 현황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000여명에 이르는 학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인 학회 중 하나이다. 특히 규모, 학문적 활동, 영향력 등 전반적인 면에서 교육학분야 분과학회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1967년 설립된 이래 50여 년 동안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으며, 현재에도 해마다 수차례의 학술대회, 학술지를 통한 100여 편이 넘는 양질의 논문 생산, 다양한 정책개발연구 수행, 학술서적 간행 등 역동적인 학회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7.2. 문제점

7.2.1. 그들만의 리그

학회에서 발표하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한정되어 있다. 발표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분들이 주로 발표를 한다. 학회에서 발표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발표하는 분들은 새로운 연구를 해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관심과 호기심이 낮아진다. 한정된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회는 ‘그들’의 학회이지 ‘나’의 학회는 아닌 것으로 여긴다.

7.2.2. 학문적 소통 부족

학문하는 사람들이 모인 학회나 학술대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문적 소통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회원들이 학회에서의 학문적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학회에서의 학문적 소통은 각자 열심히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발표하고 서로의 논문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하며 토론을 통해 학문적인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 학회에서 발표자들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부랴부랴 시간에 쫓겨 끝내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버렸다. 대부분 질의응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학회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진리가 되어 버렸다. 간혹 질의응답을 위한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더라도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음. 토론 과정에의 비참여가 학습이 되어 버린 것이다.

7.2.3. 학문적 자극 부족

학문적 자극은 학문적인 도전의식과 치열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누구든지 학문적인 도전의식이 있으며 더 나은 논리와 더 나은 이론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자신의 논리와 이론, 자신의 연구에 대한 완전함을 위한 욕구가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 자극과 도전의식을 학회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논문, 책 등 다양한 소스를 통해 지적 자극과 도전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인 학회 역시 이러한 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다. 그런데 학회 회원들 중 상당수가 학회를 통해 이러한 지적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7.2.4. 교류 부족

학회를 통한 학문적 자극과 소통 못지않게 인간적인 교류도 매우 중요하다. 학문적인 소통이나 교류의 중요한 기반이 인간적인 교류와 친밀감이기 때문이다. 학문도 인간이 하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과 애정, 친밀함이 없으면 그 어떤 학문적인 교류도 기능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체로 학문적인 소통과 인간적인 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회에 참석하려고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나마 학회에 참석해서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회원들이 많다. 다른 부분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용기를 내어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많은 참석 인원 가운데 웬지 모를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다.

7.2.5. 학술대회 참석의 이점이 별로 없음

현실적으로 각 대학이나 기관에서 학술대회 발표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학술대회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학술대회의 발표가 그렇게 큰 영예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각 대학이나 기관에서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연구 성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학술대회 참여나 발표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7.2.6. 중진 이상 및 원로급 연구자들의 발표가 매우 미흡함

학문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진 이상 및 원로급 연구자들의 학문적 소양은 학회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들이 학술대회에서 자주 발표하고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장은 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2> 학술대회에 대한 이미지 종합(회원 면담)

“학회에 참석을 해도 배우는 것이 별로 없다.”
“학회는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이다.”
“학회는 그들만의 리그이다. 발표하는 사람만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다.”
“학회에는 얼굴 비추고 인사하기 위해 간다.”
“학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쟁점이 없다.”

7.3. 개선 방안

7.3.1.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분야 3대 과제

<표 3>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분야 3대 과제

첫째,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분야에서 선도적, 예언적 아젠다 발굴, 제시
둘째, 건고한 학술 담론 체제 구축
- 논쟁, 논쟁, 담론이 이루어지는 체제
- 시대를 꿰뚫고 시대를 선도하는 학술 아젠다 발굴 제시
셋째, 구성원들의 참여기반 구축
- 학회 이미지 제고 : “내가 연구한 것을 학회에서 발표하고 검증받고 싶다.”
- 발표와 토론 기회의 획기적인 확대

7.3.2. 개선 방향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발표나 토론의 기회 확대

학술대회에 본인이 참여하는 만큼 얻게 된다. 적극 참여하면 그만큼 많이 얻게 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그만큼 얻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술대회에 회원들이 참여하는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발표나 토론이기 때문에 발표나 토론의 장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문적 소통의 기회 확대

학문적 소통은 학술대회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반이다. 학술대회에서 소통은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선 학술대회 발표회장에서의 소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술대회 발표회장에서는 좋은 논문들이 발표 되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며, 많은 질의응답과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술대회 발표회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토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학문적 담론 형성

학회가 본질적으로 부여받은 사명 중의 하나는 학문적 담론 형성이다. 학문적 담론은 좀 더 체계화되고 정합성 있는 학문적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 담론은 형성뿐만 아니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한국교육행정학 분야 담론 형성의 중추이다.

학문 후속세대 적극 육성

학문 후속세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학회의 미래는 학문후속세대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학문 후속세대들이 준비되는 만큼 우리 학회의 미래가 결정된다. 학문후속세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즐거운 축제의 장으로서의 학술대회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학술대회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다양한 장들이 다채롭게 마련되어 풍성한 학문의

장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자나 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관심과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하고, 신진학자나 대학원생들은 풍성한 배울 거리들을 얻게 해야 한다.

7.3.3. 개선 방안

목표: 학회로서의 학문적, 공동체적 정체성 강화

-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고 글로벌·간학문성을 지향
- 학문적 교류 활성화
-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의 잔치’ 장으로서의 학술대회

주요 지향

<표 4> 학술대회 지향점

지향	내용	방안
학술성(academicism)을 높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론, 원리, 논리가 탐구되고 발표되는 장 ▪ 학문적인 문제의식의 강화 ▪ 연구방법론의 강화 ▪ 연구나 발표에 대한 학문적 피드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적 기준 바탕으로 발표 및 토론 지침 마련하여 제시 ▪ 충분한 발표준비 기간 부여
충분한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회 구성원 간의 충분한 학문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 ▪ 학회 구성원 + 외부 관련기관 구성원 간의 교류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토론, 질의응답시간 마련 ▪ 산학연계성 프로그램 마련(외부기관 협력) ▪ workshop 프로그램 활성화
학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장 ▪ 학회 구성원 모두의 잔치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마련 ▪ 학술대회 주제의 확대 ▪ 발표, 토론자 확대 ▪ roundtable 프로그램 활성화

기타 개선 방안

가) 학술대회 주제 선정 시기

- 학술대회 주제는 1년 전에 정하기
- 발표자는 최소 5개월 전에 정하기: 중간에 1-2회 정도 검토 회의 (발표, 토론 준비 매뉴얼 만들어 제공하기)

나) 교육행정 학술 아젠다(의제) 발굴 및 개발위원회 구성

- 한시 조직이 아니라 상시 조직
- 교육행정 이론과 실제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 중심
- 지속적으로 흐름을 탐색하며 의제 발굴 (단기, 중기, 장기 연구 아젠다 발굴)
-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논문 혹은 소식지를 통해 발표하고 공유
- 누구나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개방적 장 마련

다) 연장선상에서 교육행정학회가 학회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한 주제를 발주

-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기초연구가 필요한 영역, 주제 : 공모, 지명하여 연구 수행
- 한국교육행정학의 기초를 쌓는 일

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 아젠다와 관련하여 뒷북만치는 학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앞서나가는 선도적, 예언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교육관료와 정치가들이 교육행정학회를 주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새로운 이미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 싶다”

“학회에 가면 배우는 것이 많다”

“연구를 하면 학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학회에서 담론이 형성되고 있고, 쟁점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행정학회에서 교육행정 이론과 실제와 관련된 아젠다를 주도 하고 있다”

“학회에서 collective intelligence가 발현되고 있다”

“학회는 학문적 씨줄과 날줄이 엮이는 장이 되고 있다”

“교육행정학회에서 무엇을 논의하는지 궁금하다(정책담당자, 정치가 등)”

8. 묻고 답하는 나는 누구인가? 3)

염민호(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을 위해 마련된 2018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주제: 대학원 교육의 도전과 혁신)의 패널 토론은 ‘묻고 답하기’가 본업인 나에게 큰 충격을 남겼다. 그 충격의 원인은 결코 질문하지 않았던 대학원생들의 태도였다. 그날 패널 토론은 대학원생을 위한 자리였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청중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대학원생들에게 사회자는 끊임없이 질문의 구애를 펼쳤지만, 그들 대신 그들의 몇몇 선생들이 질문에 나섰다. 그날 받은 충격의 여파가 이 글을 쓰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대학원생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더라면, 아마 이 글의 내용도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의 양쪽 통로까지 별도의 자리를 급히 만들어 80여 명을 꽉 채운 패널 토론의 시작은 내게 야릇한 긴장을 주기에 충분했다. 존재 그 자체로 청춘의 기력을 발산하는 대학원생들의 호기심 가득한 총총한 눈빛과 밝은 표정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는 주어진 토론 시간 동안 한순간의 긴장도 느끼지 못했다. 어떤 대학원생들도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들은 침묵했을까, 아니면 무엇이 그들을 침묵하게 했을까. 몹시 궁금했다.

3) 이 글은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 학술대회(2018년 9월 15일)의 패널 토론에서 발표한 내용을 학회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나는 ‘교육행정연구 워크숍: 교육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II)’를 주제로 열린 이날 패널 토론에서 연구자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자로서의 나를 규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약 90분 동안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대학원생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는데, 나는 ‘질문하지 않았던 대학원생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소위 중진급 연구자들이 쏟아내는 심오하고 난해한 지식에 주눅 들어서일까, 아니면 대중 앞에서 혹은 선생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아서일까. 혹은 성장과정에서 체득한 ‘침묵 학습’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걸까, 그도 아니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저항’ 혹은 ‘무시’의 다른 표현이었을까.

그날 대학원생들의 침묵 이유를 따지는 나의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막연한 답답함으로 이어졌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침묵이 그날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경험한 대부분의 학술대회는 발표만 듣고 끝내거나, 질문과 응답의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토론의 기회가 주어져도 시간에 쫓기어 제대로 된 토론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가 학회에 참석하기 시작한 이후 30여 년 동안 이어지는 매우 한국적인 학술대회의 분위기다. 이런 학술대회의 분위기에서 동료들은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고 배울까. 아마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10년 후 혹은 그 후도 우리가 상상하는 열띤 토론이 오가는 학술대회는 보기 힘들 것 같다.

8.1. 대학원생들의 침묵과 교육행정학의 정체성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일상 활동에서 질문과 토론을 중시하는 나에게 그날의 분위기는 ‘교육행정학 연구 패러다임,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고 나와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국이라는 분단사회에서, 주변부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자로서 나의 세계 인식은 혼란과 방황의 연속이다. 그 혼란 중의 하나는 교육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 나는 교육행정학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기대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갈등과 모순이 중첩

된 한국의 교육 현장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사실 규명의 작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맥락에서 구성된 출처 불명의 각종 수입 이론이 현장의 문제를 규명하는 분석틀로 존중받는 분위기는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자인 내게 또 다른 혼란의 요인이 되고 있다. 내가 접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그 출처가 영미권인데, 그 출처는 한국과는 다른 사회 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적절한 번역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이론들 앞에서 방황한다. 이유는 연구자들이 이론 소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가 난해하고, 번역된 내용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외국어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나는 주변부 지식인으로서 맥락이 다른 곳에서 빠른 속도로 수입되어 날아드는 다양한 이론들을 마주하면서 길을 잃곤 한다. 학술대회마다 등장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애매모호한 용어’와 ‘신조어’는 간혹 신선함을 주긴 하지만, 대개는 그 내용의 빈약함 때문에 사회과학자를 자처하는 나의 인식 세계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라진다. 또한 마치 종교의 세계처럼 검증을 허락하지 않은 많은 주장들은 나와 동료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 뿐만 아니라 정교한 방법론으로 무장했다는 난해한 경험연구들은 복잡한 난수표의 해독작업과도 같아,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의 가치를 망각하고 나로 하여금 연구 방법의 이해에만 골몰하게 한다.

매번 느끼지만 교육행정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는 주제 구성 방식에서 권위 있는 관찰자나 평가자의 입장을 취한다. 차분하고 점잖다. 이러다 보니 교육현장의 갈등과 모순을 드러내는 쟁점 위주의 접근이 부족하다. 오래된 유산이다. 기존의 교육제도와 운영에 도발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육현상에 대한 새롭고 도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번 발표 끄트머리에 잠시 등장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매우 익숙한 용어와 논리들이 반복된다. 많은 경

우, 발표자는 난해한 문제풀이에 고민하는 고독한 수도승의 자세와 독백을 보여준다. 갈등과 모순으로 가득한 교육현장의 본질적 문제는 보이지 않고 표현만 달리한 처방전만 휘날린다. 학회를 지배하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발표자는 고급통계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데만 집중한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선후배, 선생과 학생 간의 각뚝한 예절에 매우 익숙하다. 동방예의지국의 유산에 학습된 그 예절 속에서는 연구자가 가져야 할 날카로운 문제의식도, 도발적인 과격도 자리하기 힘들다. 학술대회가 끝난 후 돌아오는 길에 매번 하는 질문은 다음 학술대회에 '갈까, 말까'하는 자문이다. 장거리 여행과 온종일 경청하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귀가 때면 마치 행사에 동원된 '인적 자원'이 된 것 같아 여간 맘이 개운치 않다.

이번 학술대회도 매번 고민하던 갖가지 문제를 나 스스로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나는 이 글을 통해 '교육행정'으로 분류되는 특정의 현상을 연구하는 인식의 주체로서 내가 규정하는 '나'를 동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나의 사회적 존재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며, 내가 속한 교육행정학회의 정체성과 이 학회에 속한 '나'라는 특정 연구자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 작업은 내게 특별한 도전이다. 왜냐하면, 학술대회에서 우리는 '나'의 성찰보다는 '그것들(조직, 정책, 제도)'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학술대회에서 대상화된 '그것들'은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살아있는' 단어로 부활되어 나와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았으며, '그것들'을 설명하는 논리 또한 많은 경우 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탈맥락적 담론으로만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 결과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연구와 글쓰기가 어떤 의미가 있지, 하는 자문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인연 덕분에 그 동안 스스로만 묻던 것을 공개적으로 답하게 되었다. 나와 세상에 ‘묻고 답하는 나’를 성찰하는 이 작업은 나 스스로를 솔직하게 드러내야하기에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 편으로는 부끄럽다. 두려운 이유는 그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소위 공론의 장에서 자질구레한 개인의 일상 노출은 금기 또는 자제의 영역이라 배웠던 탓이다. 부끄러운 이유는 내가 굳이 이런 글을 써야만 하는가에 대한 자각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속한 연구공동체와 교육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아직은 남아있어 용기를 내어 자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나는 나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결론은 ‘나는 나와 세상에 묻고 답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8.2.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나

내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인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성찰 작업 이전에 먼저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을 점검해보자. 이유는 사회와 고립된 나의 생존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존중하는 사적 가치와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쟁 및 효율의 틀 내에서 움썅달썅 못하는 지식 생산자다. 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존중하며 공동체 삶에서 개인의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한 시민이다. 나는 70년 동안 유지된 남북분단사회에 살며, 분단체제가 초래한 갖가지 모순과 왜곡을 나의 일터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며, 절실하게 느끼는 교육자다. 나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특별한 지역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호남이라는 지역에 사는 주변부 지식인이다. 나는 고등교육의 공적 가치 실현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국립대학에서 일하는데, 이곳은 권리

보다는 의무만 강조되는 특수한 연구/교육기관이다.

사회적 존재인 '나'를 규정하는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온갖 가지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를 단순하게 규정할 수 있다. 나는 사회 현상 중에서 '교육(행정) 현상'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다. 나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다. 대학의 교육학과에서 일하는 교수로서 내 임무는 교육 현상과 관련된 나의 관심 분야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다. 연구 활동은 주로 내가 인식하는 교육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다. 문제 해결의 목적은 내가 속한 대학/지역/국가/세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나는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 역량, 태도 등을 가르치는 데, 각각의 수준과 내용은 함께 공부하는 학생의 관심과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나는 학생의 지식과 역량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삶에 좀 더 바람직한 태도가 정착되기를 원한다.

8.3. 연구와 글쓰기

내가 일상 활동으로 수행하는 연구와 교육은 나를 다른 직종의 사람들과 구분 지을 수 있는 특별한 '노동'에 속한다. 그 중 '글쓰기'는 대학교수인 내가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꼭 필요한 작업으로 매우 힘든 노동이다. 내가 쓰는 글의 유형은 여러 가지 형식을 띄고 있다. 대표적인 글의 형식은 연구제안서,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책, 수업계획서, 수업자료, 서평, 각종 모임 보고서, 조사 보고서, 공문서, 칼럼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는 내가 연구자와 교육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특별한 훈련의 결과물이다. 그 훈련의 과정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다. 많은 경우 나는 작업 과정에서 스스

로 자주 물었다. 연구자로서 나는 왜 ‘연구’를 하고, ‘글’을 써야만 하는가. 교육자로서 나는 왜 가르치며, 가르치는 나의 행위를 이끄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나와 내 동료들이 훈련과정과 일상의 작업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해야만 하는 매우 소중한 일이다.

나는 왜 연구하고 글을 쓰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핵심 이유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확인하고, 독자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가 음악을 창조하여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연구와 글쓰기는 일종의 사회적 생존의 방식이다. ‘연구’ 활동의 목적은 내가 인식하는 사회적 문제 또는 내가 관심 갖는 주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나는 내 연구의 결과를 글로 쓰지 않으면 내 존재 이유를 주변으로부터 확인받을 길이 없다. 사회적 존재인 대학교수로서 연구자인 나는 내가 이 사회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글’을 통해 학생, 동료, 그리고 독자로부터 확인받아야만 한다. 연구 활동의 결과를 보고하는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 목적은 나의 생각을 독자인 학생 및 동료들과 공유하는 데 있다. 공유과정에서 나는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나의 한계를 매번 깨닫는다. 특히 내가 받은 동료 피드백은 나의 글쓰기와 전공 분야의 지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나는 교육행정학 분야의 연구자로서 오랜 시간 특별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의 최종 결과물은 항상 ‘글쓰기’였다. 그 훈련 기간 동안 나의 관심과 연구 문제는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현상으로 넓어졌고, 연구 목적에 따라 방법론도 다양해졌다. 내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형식의 글로 전환되어 내가 속한 대학,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연구자로서 나는 ‘교육 (행정) 현상’과 관련된 나의 관심 분야를 연

구하고 그 결과를 논문과 책으로 출판해야 한다. 논문은 연구자인 내가 의심하는 혹은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 속에 담긴 사실과 사실관계를 포착한 후 그 현상이 지닌 특성의 양식을 규명하여 그 양식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글의 유형이다. 논문 쓰기는 내가 속한 교육행정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규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나는 글쓰기 방법, 글의 분량, 자료 분석 및 해석 방법, 논리 구성 등에 있어 내가 속한 연구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논문의 출판은 내가 관심을 갖는 연구주제를 대상으로 적절한 연구 방법(관찰, 실험, 면담, 해석)을 통해 그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동료 연구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논문 출판 과정에서 나와 나의 동료들은 서로의 글에 피드백을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선정한 연구주제가 창의적이고 명료한지, 연구 방법이 타당한지, 교육행정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논지가 일관성 있고, 진술이 명확한지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정직하게 공유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교육, 미국의 교원교육, 인도네시아의 중등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 국내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출판했다.

연구자로서 책 쓰기는 특정의 규칙에 맞춰야 하는 논문 쓰기와는 달리 다루는 주제의 폭이 넓고, 분량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나 자신만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책은 특정의 교육적 현상 또는 교육적 쟁점에 대해 연구자로서 내가 갖고 있는 사상적 입장에 근거하여 그 형식과 내용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작업의 결과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대학의 교양교육’,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을 주제로 한글과 영어로 쓴 단행본을 출판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각종 연구보고서와 서평, 그리고 칼럼, 논문 심사평을 써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역량을 동료 및

독자들과 공유한다.

서로 다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글의 형식을 활용하는 나의 글 쓰기는 나의 사회적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주는 일종의 생산물이다. 이런 생산물을 정기적으로 만들어낸 후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속한 연구공동체에서 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구절은 “나는 글을 써야 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쓰는 ‘글’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가장 큰 효과는 내가 쓰는 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속되고 공유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들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은 특별한 보관 처리를 하지 않는 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쓴 글은 기록으로 남아 동시대 혹은 후세의 다른 사람에게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내 글을 근거로 자신의 관심 영역을 확대할 수 있거나 나와는 다른 관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난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쓴 글이 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해 하며, 독자의 반응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린다.

8.4. 교육과 글쓰기

가르치는 교수로서 나의 글쓰기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논문이나 책보다는 노동의 강도가 훨씬 덜하다. 연구공동체에서 존중하는 특성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내가 쓴 수업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논문 또는 책의 독자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기에 수업자료와 관련한 나의 글쓰기는 형식과 내용이 자유롭다. 수업 자료는 내가 가르치는 특별한 교과목 영역에서 축적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거나 학생들의 역량 신장에 필요한 특별한 ‘기술’을 알기 쉽게

진술한 내용을 포함한다.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자료는 내가 가진 지식과 기술 그리고 경험을 종합한 것으로 나와 학생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전달 매체다. 수업에서는 다른 동료들이 쓴 논문과 책도 많이 활용하지만, 내가 직접 쓴 수업 자료가 수업의 목적과 맥락에 맞춰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내가 가르치는 교과목인 글쓰기, 학문방법론, 교육학논리논술교육의 수업자료는 자아성찰소론, 자기소개서, 서평, 선행연구검토보고서, 연구제안서, 연구논문의 작성과 관련된 지식과 기법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행정, 교육조직론, 교육정책, 교육개혁 등과 관련 교과목의 수업 자료는 교과목과 관련된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수강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진술해야 한다. 수업과 관련된 글쓰기에서 가장 노동 강도가 높은 것은 학생들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적시에 진행되는 피드백은 나와 학생 간의 교수-학습관계와 그 가치를 제대로 확인해줄 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큰 효과가 있었다.

교육자로서 나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과의 면담에서 묻고 답하는 행위를 매우 중시한다. 나의 수업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난다. 학생의 입을 열어주기 위해서다. 수업 중 제기되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대응은 가능한 학생이 먼저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내가 보충한다. 내 수업의 마지막 질문은 학생들의 '수업 평가'를 요구한다. 학부와 대학원 수업 모두 그렇다. 이유는 나의 성장과정에서 체득한 학습효과 때문이다. 나는 대학시절 교수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원맨쇼'를 견디다 못해 대학신문 기자 활동을 한 바 있다. 기자 활동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 동료들과의 토론으로 시작했고, 기사를 쓰기 위해서 많은 취재원들에게 질문을 해야 했으며, 최종 기사로 출판되기 전에 동료의 피드백을 받아야만 했다. 문제의 제기부터 기사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은 질문의 연속이었고, 그 결과는 오롯이 내 것으로 남았다. 내 수

업을 듣는 학생들은 계속되는 질문에 처음에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지만 수업이 끝날 즈음 그들은 나의 동료가 되어 편안하게 질문하고 당당하게 답한다. 그들이 보여주는 여유와 자신감에 나는 감동한다. 학생과의 면담도 질문으로 시작하고 질문으로 끝낸다. 면담은 그 동안의 변화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면담의 성과 여하를 묻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 나는 질문 없는 인간관계와 교육활동 그리고 사회활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학에서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일하는 나의 일상은 대학 밖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이 핵심이다. 그런데 나의 노동은 그 대상과 목적 그리고 방법에 있어 대학 밖 다른 이들의 노동과는 차별화되어 있다. 대상은 ‘살아있는 존엄한 사람’이며, 목적은 특별한 가치를 지향하고, 방법은 상호작용의 깨달음을 중시한다. 이렇다 보니 내가 하는 연구와 교육 활동의 핵심인 글쓰기에는 내가 기울이는 많은 수고만큼의 큰 성취가 어렵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익창출의 논리인 ‘최소 투자로 최대효과’라는 경제법칙은 적어도 나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나는 그 동안의 연구와 교육 경험을 통해 “최대의 노력으로 최소의 성과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만 내 노동의 가치를 그나마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나는 내가 하는 특수한 노동인 연구와 교육 활동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도 시장과 권력기관이 생각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나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그동안 경험을 통해 나와 나의 동료들이 소중한 여기는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왜곡되고 연구자 및 교육자의 정체성을 헛갈리게 했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하는 노동의 양은 그동안 계속 늘어났지만 나의 수고로운 노동 가치를 그 만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나를

둘러싼 대학과 사회의 분위기다. 요즘의 나를 보면, 한편으로는 많이 길들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많이 지친 것 같다. 하여 나는 스스로 묻는다. 나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학생의 참된 학습을 왜곡시키는 세력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내가 존중하는 연구와 교육 활동을 왜곡시키는 세상과 어떤 식으로 타협하고 야합하고 있는가.

8.5. 삶의 현장에서 가치를 지향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나의 실존은 매우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온갖 가지 사회적 요인들과 뒤섞여있어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정체성 규명이 쉽지 않다. 단순화의 무리를 무릅쓰고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의 나의 성찰과 지향을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사회과학 연구자로서 나는 내가 속한 한국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갈등과 모순으로 중첩되어 있는 교육현장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나는 현실의 문제 개선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지식 생산자로서 내가 만들어내는 지식은 내가 속한 대학/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이해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의 독자들은 내가 보고하는 연구결과를 얼마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성찰의 결과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나만의 방향과 좌표 설정을 어렵게 한다. ‘속도’와 ‘양’ 그리고 ‘숫자’를 중시하는 요즘의 분위기는 연구의 공적 가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적 가치에만 몰입하게 한다. 삶의 현장과 그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교육주체의 실상을 보기 힘들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나는 나와 세계에 대한 크고 작은 질문과 답이 이어지는 깨달음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적응과 순응을 위한 지식/기법의 전수와 태도의 주입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 나는 스

스로 묻는다. 내가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과연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소개하는 지식이 학생들의 삶의 개척과 세계인식에 진짜 쓸모가 있을까. 내가 강조하는 역량은 학생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데 과연 보탬이 될까. 내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후나의 안녕과 편함만을 위한 것은 아닐까. 대학에서 내가 수행하는 가르침은 ‘대학 大學(큰 배움)’이라는 용어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까. 곰곰이 성찰하면 나는 가르침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그 가치 실현을 위한 용감한 도전보다는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것 같다. 교육자로서 내 시간의 대부분은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온갖 가지의 수입된 지식의 전수와 책무성의 이름으로 부과된 교육과정의 합리적 수행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사회적 존재인 나는 최소한 매일 ‘이 뒤틀고’를 되풀이하는 자아 성찰의 연장선상에 있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적 훈련을 받은 연구자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자로서 나는 나의 성찰을 어떻게 실천으로 구현하는가를 스스로 묻는다. 연구자로서 나는 갈등, 모순, 혼돈으로 중첩된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방향은 개인들이 인식하는 사적 문제를 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에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성찰하면, 공적 가치 실현에 대한 나만의 입장을 더 분명하게 가져할 것이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사회 구조와 역사적 과정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사회 문제와 교육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조직의 질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육조직 구성원들의 일상 삶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보고에 적절한 창조적 글쓰기를 고

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나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근대화를 목적으로 개인의 사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율과 발전의 논리에만 집착하였는데, 그 결과는 부의 양극화, 승자독식, 청년실업,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큰 사회문제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활동에서 인식하는 발전의 개념과 성과는 크기, 양, 속도로만 측정되었고, 교육과 학습의 주체 그리고 노동의 주체인 사람과 노동의 과정 그리고 그 질은 무시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 인권, 정의, 평화, 평등의 가치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특별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교육자의 권위주의와 엘리트 의식보다는 배우는 학생의 권리와 참여가 더 중요하다.

현장을 존중하는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나는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정교해지며, 더 은밀하게 작동하는 관료적 통제행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 대안 모색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개혁을 위한 개인적 용기와 사회구조 변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와 연대를 존중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모든 성찰의 결과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진다. 연구와 교육활동에서 나는 누구인가. 도구인가, 주체인가. 나는 우리 서로가 더 많이 질문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연구공동체와 교육공동체의 오늘과 내일이 가능할 것 같다. 내 스스로 묻고 내 스스로 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날 그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았던 대학원생들도 어디에선가는 나처럼 묻고 답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